

# 交友歌



## [해제]

<교우가>는 『강륜보감(綱倫寶鑑)』 권지일(卷之一)에 수록된 국한문 혼용체의 짧은 가사이다. 이 가사의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자는 알 수 없다. 다만 『강륜보감(綱倫寶鑑)』의 첫 장에 “全南 羅州郡 細枝面 松堤里 春儒生 金福千 留巖 辛丑年 七月十五日”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륜보감』이라는 책은 신축년에 전라도 나주군에서 유생 김복천이란 사람이 제작 혹은 소장했던 책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 작품은 오륜(五倫)의 다섯 가지 도리 중 하나인 봉우유신(朋友有信)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벗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고언(苦言)으로 선도(善道)할 것이며, 벗을 사귀에 유익한 부류와 손해가 되는 부류가 있으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은 말만하고 고언(苦言)을 하지 않아 늘 화평(和平)하지만 이는 좋은 일이 아니며 진정한 벗이란 서로를 공경하며 자신을 낮추고 충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 [원문]

多乘어던 不乘하며 疑心어던 不乘하며  
 多霧어던 不乘하며 船側에 不倚하며  
 乘飛을 할적에난 乘船法과 갖치하되  
 不晴어던 不乘하며 乘飛하야 上下이며  
 左右을 不見하라 君子난 三乘흥을  
 無故이 不乘하며 三乘흥을 不嗜터라  
 朋友篇

## 一.交友歌

交友歌을 불너보자 交友歌을 불너보와  
 交友交友 내交友가 朋友有信 안일년가  
 朋友을 正會하되 講學하는 朋友로써  
 善交하면 道益明이요 補仁하면 德日進이라  
 善能 흥으로써 不能한딴을 무르며  
 만이 흥으로써 저근대을 무르며  
 有호되 無한타시하며 實호되 虛한타시하며  
 犯하야도 不校하니 從事흥이 有信이라  
 이럼으로 朋友난 坵~하고 悃~하며  
 兄弟난 和悅이하며 責善은 朋友之道니  
 友行이 不可하면 忠誠으로 善告하며  
 愛心으로 善道호되 不可하면 止하며  
 스스로 辱은말나 日後보기 無顏하다  
 是邦에 居흥에 大夫之賢 흥의  
 嚴憚흥을 섬기며 선비의 仁흥의  
 坵磋흥을 朋友하면 皆進德之助이며  
 朋友之交 하올적에 益者가 三友잇스며  
 損者가 三友잇나니 聞過하는 友直과

進誠하는 友諒과 進明하는 友叅聞은  
有益하는 三友요 不直하는 友便辟과  
不諒하는 友善柔와 不實하는 友便佞은  
有損하는 三友니라 長者을 挾하며  
貴者을 挾하며 兄弟을 挾하여  
朋友하지 아니하니 오즉德人을 朋友하며  
人之歡을 不盡하며 人之忠을 不竭하여  
朋友을 全交하세 歡忠은 難全하네  
今世人心이 淺薄하여 歡狎으로 相與하며  
無角으로 歡愛하며 善柔흥을 相好하여  
執袂하여 拍肩하며 氣合하여 朋友하니  
一言에 不睦되야 怒氣을 相加하며  
鬪爭흥이 叅損하니 엇지 久親하리요  
能이長久할 朋友난 恭敬으로 相與하며  
下讓으로 不倦하며 忠告로 信實하며  
善道로 敦篤하니 遠久이 不變이라  
이朋友을 親近하면 엇지 淺薄하리요  
友交흥이 能久하니 이난全交 안일년가

## 二. 賓主接禮歌

## [현대역]

다승(多乘)커든 불승(不乘)하며 의심(疑心)27커든 불승(不乘)하며  
 다무(多霧)커든 불승(不乘)하며 선측(船側)에 불의(不倚)하며  
 승비(乘飛)를 할 적에는 승선법(乘船法)과 같이 하되  
 불청(不晴)커든 불승(不乘)하며 승비(乘飛)하여 상하(上下)이며  
 좌우(左右)를 불견(不見)하라 군자(君子)는 삼승(三乘)함을  
 무고(無故)이 불승(不乘)하며 삼승(三乘)함을 불기(不嗜)28터라  
 朋友篇

## 一. 교우가(交友歌)

교우가(交友歌)를 불러보자 교우가(交友歌)를 불러보아  
 교우교우(交友交友) 내 교우(交友)가 봉우유신(朋友有信)1 아닐런가  
 봉우(朋友)를 정회(正會)하되 강학(講學)하는 봉우(朋友)로서  
 선교(善交)하면 도익명(道益明)이요2 보인(補仁)하면 덕일진(德日進)이라3  
 선능(善能)4함으로써 불능(不能)한 곳을 물으며  
 많이 함으로써 적은 곳을 물으며  
 있으되 없는 듯이 하며 가득하되 빈 것처럼 하며  
 범(犯)하여도 불교(不校)5하니 종사(從事)함이 유신(有信)6이라  
 이럼으로 봉우(朋友)는 절절(切切)7하고 시시(僣僣)8하며  
 형제(兄弟)는 화열(和悅)9하며 책선(責善)10은 봉우지도(朋友之道)11이니  
 우행(友行)12이 불가(不可)하면 충성(忠誠)13으로 선고(善告)14하며  
 애심(愛心)으로 선도(善道)15하되 불가(不可)하면 그만두며  
 스스로 욱보이지는 말라 일후(日後)에 보기 무안(無顏)하다  
 이 나라에 살면서 대부(大夫)의 어짐에  
 엄탄(嚴憚)16함을 섬기며 선비의 어짐에  
 절차(切磋)17함을 봉우(朋友)하면 모두 덕으로 나아감을 도우며  
 봉우지교(朋友之交)18 하올 때에 익자(益者)가 삼우(三友) 있으며19  
 손자(損者)가 삼우(三友) 있으니20 문과(聞過)하는 우직(友直)21과  
 진성(進誠)22하는 우량(友諒)23과 진명(進明)24하는 벗이 많다고 들은 것은  
 유익(有益)한 삼우(三友)요 정직하지 않은 우편벽(友便辟)25과  
 불량(不諒)한 우선유(友善柔)26와 부실(不實)한 우편영(友便佞)27은  
 유손(有損)하는 삼우(三友)니라 장자(長者)를 협(挾)하고  
 귀자(貴者)를 협(挾)하며 형제(兄弟)를 협(挾)하여  
 벗이라 하지 않으니 오직 덕인(德人)을 벗하며  
 사람의 기쁨이 다 되지 않으며 사람의 충성이 다하지 않으며  
 벗을 온전히 사귀세 기쁨과 충성은 온전하기 어렵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천박(淺薄)하여 환압(歡狎)28으로 서로 함께하며  
 무각(無角)29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선유(善柔)30함을 서로 좋아하여

소매를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기운을 합하여 벗하니  
한마디 말에 불합(不睦)되어 노기(怒氣)를 서로 더하며  
투쟁(鬪爭)함이 많이 감소하니 어찌 오래도록 친하리오  
능히 오래도록 벗은 공경(恭敬)으로 서로 함께하며  
자신을 낮추어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충고(忠告)로 신실(信實)하며  
선도(善道)로 돈독(敦篤)하니 오래도록 변하지 않음이라  
이 붕우(朋友)를 친근(親近)하면 어찌 천박(淺薄)하리오  
벗과 사귀는 능히 오래되었으니 이는 온전히 사귀어 아낄런가

이(二). 빈주접례가(賓主接禮歌)

[각주]

- 27) 의심(疑心) : ①마음에 미심하게 여기는 생각 ②믿지 못하는 모양(模樣).
- 28) 불기(不嗜) : 즐기지 아니함.
- 1) 봉우유신(朋友有信) : 오륜(五倫)의 하나.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함.
- 2) 선교(善交)하면 도익명(道益明)이요 : 사귀를 잘하면 도(道)가 더욱 밝아지고
- 3) 보인(補仁)하면 덕일진(德日進)이라 : 인(仁)을 도우면 덕(德)이 날로 나아간다.
- 4) 선능(善能) : 능히 잘함.
- 5) 불교(不校) : 보복하지 않음.
- 6) 유신(有信) : 믿음이 있음.
- 7) 절절(切切) : 절책(切責). 간절하게 책선(責善)해서 권장하는 일.
- 8) 시시(僣僣) : 친절하게 알려주어 격려하는 일.
- 9) 화열(和悅) : 마음이 화평하여 기쁨.
- 10) 책선(責善) :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함.
- 11) 봉우지도(朋友之道) : 벗 사이의 도.
- 12) 우행(友行) : 벗의 행실.
- 13) 충성(忠誠) :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 14) 선고(善告) : 올바르게 깨우쳐 줌.
- 15) 선도(善道) : 좋은 길로 올바르게 인도함.
- 16) 엄탄(嚴憚) : 엄격히 삼가고 꺼림.
- 17) 절차(切磋) : 부지런히 학문이나 도덕을 닦음.
- 18) 봉우지교(朋友之交) : 벗을 사귀.
- 19) 익자(益者)가 삼우(三友) 있으며 : 익자삼우(益者三友). 사귀어 자기에게 유익한 세 부류의 벗이라는 뜻으로, 정직한 사람, 친구의 도리(道理)를 지키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 20) 손자(損者)가 삼우(三友) 있으니 : 손자삼우(損者三友). 사귀면 손해가 되는 세 가지 친구로서, 무슨 일이나 안이한 길만을 취하는 사람,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 입에 발린 말 뿐이고 성의가 없는 사람.
- 21) 우직(友直) : 정직한 벗.
- 22) 진성(進誠) : 진실되고 정성됨.
- 23) 우량(友諒) : 어진 벗.
- 24) 진명(進明) : 똑똑함.
- 25) 우편벽(友便辟) : 아첨하는 벗.
- 26) 우선유(友善柔) : 성실하지 않고 겉만 온화한 벗.
- 27) 우편영(友便佞) : 아첨하는 벗.
- 28) 환압(歡狎) : 기빠하고 좋아함이 지나쳐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 29) 무각(無角) : 무규각(無圭角). 말과 행동이 남과 충돌하지 않음.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뜻에만 맞춰 둥글게 지내는 것을 가리킴.
- 30) 선유(善柔) : 성실하지 않고 겉모습만 온화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